

# '기술경영 선각자' 조석래 명예회장 빈소 사흘째 추모행렬

### 최태원·이재현·정용진·허태수 등 후배 경제인들 조문 줄이어 산업장관 "우리산업 일으킨 파운더"...반기문 "경제발전 큰 역할"

지난 29일 별세한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의 빈소에는 30-31일 이명박 전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김진표 국회의장, 대통령실 이관섭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각계 인사들이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빈소가 차려진 지 사흘째인 1일에도 국내 경제계의 '큰 어른'이었던 고인을 추모하려는 발길이 이어졌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 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삼성가 이재현 CJ그룹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허용수 GS에너지 사장 등이 조문했다.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방문, 1시간여 동안 유가족을 위로하고 애도했다.

이와 함께 중앙일보 홍석형 회장을 비롯해 문화일보 이병규 회장, 동아일보 김재호 회장, 한국경제신문 김경호 사장 등 언론계 인사들의 발길도 이어졌다.

이외에도 이날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 이우일 OCI홀딩스 회장, 윤세영 태영그룹 회장, 조동길 한솔그룹 회장, 서석수 한일경제협회 상근부회장, 국회의원을 지낸 홍정욱 율가나 회장 등 많은 경제계 인사가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약 20분간 빈소에 머무른 뒤 기자들과 만나 "고인께서는 대한민국의 기술

경영자로서 선각자였고, 민간 외교도 상당히 잘 해주셨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조 명예회장을) 모범으로 삼아 저희 후배들이 앞으로도 계속 잘해 나가는 게 좋겠다고 (유족과) 얘기했다"고 전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조문을 마치고서 취재진과 만나 "국가 경제에 많은 일을 하셨고, 산업계에 큰 업적이 있으신 분"이라며 "이런 훌륭한 인재 인사를 보내는 게 참 안타깝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이 회장은 고인과의 인연에 대해서는 "가족끼리 선대부터 쪽 알던 사이라서 잘 알고 지냈다"고 전했다.

이우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은 조문 후 "저희 대선배이시고 항상 사랑을 많이 받았다"면서 "우리 섬유계의 별이었다"고 고인을 애도했다.

조석래 명예회장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일 때 중소기업중앙회장을 지낸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중소기업 상생 협약도 전경련에서 최초로 하신 분이고 중소기업에 애정이 많으셨다"고 회고했다.

정관계 인사들의 추모의 발길도 이어졌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정중하게 빈소를 찾아 고인을 추모하고 유족을 위로했다. 안 장관은 "(고인) 우리나라 산업을 일으킨 '파운더'이다. 산업장관 입장에서 찾아 뵙고 인사드리러 왔다"고 말했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9시 30분께

빈소를 찾아 조문을 마친 후 취재진을 만나 "조석래 회장님은 제가 외교부 미주국장할 때 한미경제협의 회장을 하셨다"며 "미국과의 관계가 경제 관계와 안보 관계에도 중요해서 그 이후 장관 할 때도 자주 만나 보았다"고 회고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 특히 한미 경제 등에서 큰 역할을 많이 하셨다"며 "본인이 하시는 기업도 발전했지만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도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고인을 추모했다.

또 반 전 총장은 "정부가 늘 경제 지도자들과 상의하고 협조하고, 경제계에서도 정부의 여러 정치안보 문제에 기여하는 것이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그런 (역할을 한) 한 분이 조석래 회장이었다"고 말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현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은 "3대 어른들 다 친하셨고 저도 존경하던 분이어서 왔다"며 "고인께서 워낙 큰 족적을 남기셨으니 잘 계승하라는 이야기를 (유족들과) 했다"고 전했다.

또 김수남 전 검찰총장, 이동원 전 대법관, 아키바 토리 주한 이스라엘 대사, 효성 공장이 있는 구미가 지역구인 김영식 국회의원 등이 빈소를 방문했다. 이와 함께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겸 박준경 금호석유화학 사장이 방문했다.

조 명예회장은 지난 3월 29일 89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서 효성그룹장으로 치러지는 장례는 이훈구 전 국무총리가 명예장례위원장을, 이상운 효성 부회장이 장례위원장을 맡았으며, 조 명예회장의 영결식은 2일 오전 8시이

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고(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의 빈소가 마련되어 있다. <효성그룹 제공>

## “故 조석래 명예회장은 시대를 앞서간 진정한 기업가”

### 최태원 회장, 대한상의 홈페이지에 추모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기업인을 대표해 별세한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을 추모했다.

최태원 회장은 지난 31일 대한상의 홈페이지에 '시대를 앞서간 진정한 기업가, 조석래 회장님을 추모하며'라는 글을 통해 고인을 "통찰력 있는 리더"라며 "힘든 시기마다 경영 선구자 '조석래', 민간 외교관 '조석래'를 떠올리게 될 것"이라고 추모했다.

최 회장은 "느닷없이 들려온 애절한 소식에 우리 경제계는 슬픔을 주체할 길이 없다"며 "언제나 세계의 큰 어른으로 남아 한국 경제를 지켜주실 것만 같았다. 지금처럼 경제가 제도약해야 할 중대한 시기에 훌륭한 리더를 잃은 것은 우리 사회의 큰 손실"이라고 적었다.

그는 고인이 우리나라 경제계의 선구자라고 같았다며 섬유산업과 첨단소재 분야에서 보여준 고인의 업적과 열정, 해안은 오늘날 우리나라가 글로벌 산업 경쟁력을 갖추는 초석을 놓았다고 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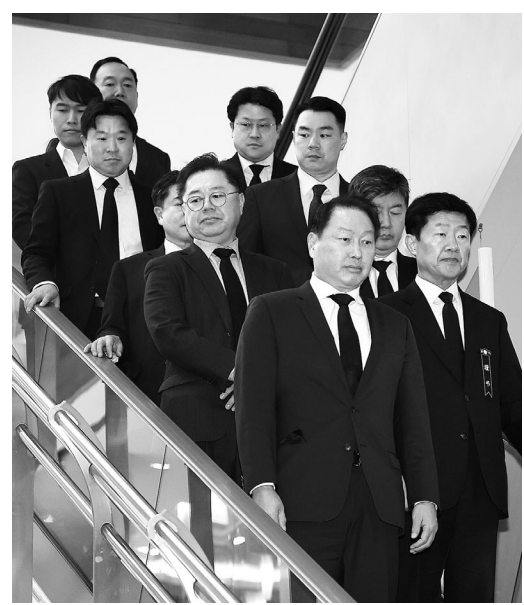
특히 고인이 우리나라 최초로 민간기술연구소를 설립한 것을 두고 기업가 정신의 모본(模本)이 됐

고, '기술입사'를 넘어 '기술입국'의 중요성을 깨우쳐준 업적이라고 했다. 또 고인이 글로벌 경제 질서의 흐름을 읽는 데 남다른 통찰력을 보여줬다며 한미재계회의의 위원장, 한일경제협회장을 맡아 우리나라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했다고도 평가했다.

최 회장은 이어 "민간분야 글로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한미 FTA 체결, 한일관계 개선 등 국가적 협력 과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민간 외교관으로 경제외교에 헌신하시며 경제대국의 기반을 마련하셨다"며 "회장님께서 '무역으로 외화 수입을 거두는 한국경제는 한미 FTA라는 무기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하시고, 난항에 빠진 한미 FTA가 원만하게 체결되도록 큰 역할을 하셨다"고 적었다.

최 회장은 고인이 생전에 남겼던 "장사꾼은 돈을 벌고, 기업가는 시대를 번다", "안 되는 이유 백 가지보다, 되는 이유 한가지가 더 중요하다"라 했던 통찰력과 똑같은 현 시대 기업가들에게 더욱 필요한 덕목이라고 했다.

최 회장은 끝으로 "회장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가르침을 계승해 대한민국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데 전력을 다하겠다"며 "이제 편히 쉬시기를 바란다"고 글을 맺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을 빈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경제 어려울수록 기업은 국민의 버팀목”

### 故 조석래 명예회장 어록

조석래 명예회장이 영면에 들면서 한국 중화학공업을 선도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등 재계의 '큰 어른'이었던 고인이 생전에 남겼던 이야기들이 회자 되고 있다.

고인은 지난 2007년 전경련 회장 취임사에서 "기업이 중장기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反)기업 정서를 해소하고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기업사를 정리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경제계는 윤리경영, 상생경영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인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면서, 지난 2009년에는 전경련 신년사에서 "경제가 어려울수록 기업은 국민의 믿음직한 버팀목이 돼야 한다. 특히 대기업은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했다.

또 민간외교관 역할을 하며 한미FTA 체결에 큰 공헌을 했던 고인은 FTA의 필요성을 강

조하기도 했으며, 규제 철폐를 주장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을 가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고인은 지난 2008년 전경련 신년사를 통해 "더 많은 나라와 FTA를 체결해 국내시장을 개방하고 기업의 대외진출을 촉진해 우리 경제의 구조와 체질을 튼튼히 해야 한다"고 했고, 2007년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서는 "연속 속 물고기 떼에 조약돌 하나만 던지면 고기들은 사라진다. 돈은 물고기와 같다. 대기업들이 투자를 망설이는 것은 불확실성과 규제가 많기 때문이다"고 했다.

이밖에도 고인은 2000년 신입사원특강에서 "여성이 취업하기 쉽게끔 사회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했으며, 지난 2009년 보육시설건립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식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육부담을 덜어주는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는 등 여성 취업과 저출산 문제 등 경제계뿐만 아닌 사회문제에도 큰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풍수 · 사주

### 수강생 수시모집 및 상담

## 기운을 바꾸는 풍수~!

주택, 사업장은 물론 산소까지,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보다 좋은 터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개강 (6개월과정)**

- 일 시: 2024. 3. 13(수) 오후 7시
- 장 소: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교육장 (무등로478-1 : 산수오거리-무등산방향 두리보석2층)
- 수강료: 풍수+사주 = 20만원(매월)

**공개강좌 (무료)**

- 일 시: 2024. 3. 6(수) 오후 7시
- 장 소: 상동(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교육장)
- 대 상: 누구나 (선착순○명)

**컨설팅(전문상담) 분야**

- 천기비법 대공개
- 기감풍수 비법 교육
- 분묘, 이장, 납골당 및 수목장 수백파 중화
- 음택, 양택의 풍수 감청 및 비보
- 사업(장사) 부진의 풍수적 진단
- 사주 교육 및 감청(사주, 궁합, 택일 등)
- 작명(신생아, 개명, 상호 등)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010-3146-6370, 010-2246-1508

## 2024 고소득 추천 목록

<b>포포나무</b>	제릭스 빅걸	선물라임×생노리스 품종의 교배를 통해 선발된 최고 크기의 포포, 최대 과중 800g
	리만스 달라이트	프로리픽×생노리스 품종의 교배를 통해 육종된 품종, 달콤한 향에 뛰어난 품질을 자랑
	마리아스 조이	최대과중 631~704g, 년중 수확량 우수 유명 과수 학자가 지칭한 최고 맛있는 포포
<b>사과</b>	신품종부사 후지사과	일파기와 반사필름을 깔지 않아도 동서남북 색상이 잘나고 저장성이 우수하며 신맛은 적고 최고의 맛을 자랑합니다
<b>감</b>	감풍, 원추	신품종, 추위에 강하고 수퍼 단감
	태추단감	배 맛이 나는 단감 중에 최고!
	슈퍼대봉	대봉중에 맛이 뛰어난 식재를 많이 합니다.
<b>임나무</b>	민업나무 가지없는 임나무	가지 없는 민업나무 가지 있는 것보다 수확이 2배가 나오고, 효능이 같습니다.
<b>두릅</b>	민두릅 참두릅	가지없는 민두릅, 참두릅, 정강두릅은 봄부터 가을까지 수확

사과, 신품종 호두, 신품종 유실수 등 품종이 다양합니다.  
※2024년 인기 품종으로 조기 품질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무는 "갑을농원"과 상담하세요!  
모든 식재 및 재배 관리까지 무료교육, 무료상담 해 드립니다.

### 휴경지 노는 땅 상담해 드립니다.

도목상담 010-3121-7676  
문의전화 053-856-1144  
경북 경산시 하양읍 화성로 25  
동협 703-02-497271(예금주 정준화)

## 펜션 급매매

### 전남 신안군 증도면 엘도라도 리조트 가기 전

- 대지 1,795㎡
- 건축 282㎡
- 연면적 438㎡
- 수영장 有
- 총 2개동 (객실11개, 히노끼 욕조 6개)
- 1개 소매점
- 주차 15대 가능
- 현재 주차장과 정원부지로 사용중인 밭(전) 1,320㎡ (무상양도)

**매매가 9억 8천**

010-3666-6301

### 분묘개장공고(1차)

상사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 제 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2조 제 18조 규정에 의거 분묘개장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계인은 아래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기간 내 신고가 없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전남 여수시 호명동 산134-1번지
2. 분묘가수: 4기
3. 개장사유: 사유 재산권 보전
4. 개장방법
5. 유언분묘 -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6.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관할법원에 의거 공과자가 임의개장
7. 안치장소: 전남 여수시 소마면 봉두리 1347-5번지 (여수시립공영묘지 제2묘장안)
8. 안치기간: 10년
9. 공고기간: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10. 신고처: 풍수철(연락처 010-3146-6975)
11. 신고시 준비사항: 해당원 분묘소재지와 관계 증명서 (호보, 제적등본, 가계, 사실확인서 등)
12. 기타사항: 개장공고 이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공사 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에 갈음합니다.

2024년 4월 2일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를 합니다.  
공고인: 홍충철

72년을 밝혀온 호남인문의 상징 - 지역과 함께, 독자와 함께 "100년 신문"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光州日報**

· 지역내내

북구	· 동광 266-1920	· 문광 266-1960	· 북광 525-3761	· 신안 222-0171
	· 양산 571-7658	· 오지 266-7801	· 동광 433-1503	· 동광 433-1503
동구	· 남광 673-6836	· 동광 222-0054	· 동부 225-6001	· 동광 222-0054
	· 동광 222-8171			
남구	· 남부 673-6836	· 백운 651-1833	· 북신 673-6836	· 송하 675-6605
	· 진광 671-7276			
서구	· 광천 382-5788	· 상무 372-2352	· 서광주 369-1625	· 윤천 376-7153
	· 치평 376-6511	· 풍암 603-0311	· 화정 369-1625	
광산구	· 은남 952-1687	· 월곡 959-1920	· 청단 973-2900	· 하남 955-0451
	· 광산 944-0444			